

제1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1. 일 시 : 단기 4786(1953)년 5월 1일 오후 3시 45분

2. 장 소 : 의회 의사당

3. 개의성립 :

1) 참석의원:14명

유정두, 이복주, 김삼성, 이재홍, 진복춘, 김팔용, 김경현, 이문길, 김길환, 김경희, 박찬규, 김자흥, 오세일, 김영완 의원

2) 불참의원:7명

이소규, 명남철, 김남진, 임일남, 문택호, 정응표, 김채용 의원

4. 의사일정표

1) 개 회 식

5. 보고사항 :

1) 판초자(板硝子)공장 설치 추진교섭 경과보고의 건

6. 부의안건 :

1) 북진통일 한사(限死)전취 결의의 건

7. 개회선언

의장 유 정 두

(오후 3시 45분)

8. 부의사항 :

◇박 찬 규 의원

- 판초자공장 설치 추진에 관한 중앙요로 교섭결과보고가 약 15분간 있었음 (내용생략, 속기록 참조)

◇의장 유 정 두

- 의원 외 5명이 요구하여 소집된 북진통일 경의의 건에 관하여 토론해 주
시기 바람

◇김 영 완 의원

- 종래의 쫓기대회를 보면 시나 경찰서가 주동인 형식적인 거세 불과하였
으나 금반에는 시의회가 주동이 되어 북진통일의 결의문을 국회에나 기타
요로에 보낼 것을 동의(재청)

◇이 복 주 의원

- 종래에 여사한 행사가 있게 되면 국민회가 주동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국
민회 지부장께 말씀하여서 국민회가 주동이 되는 것보다도 우리 의회가 주
동체가 되어서 일을 하도록 할 것과 각 요로에 결의문을 보낼 것을 의원의
동시에 참가

◇의장 유 정 두

- 결의문 작성은 사무 당국에 일임하고 국회, 이대통령 각하, 유엔총회, 크
라크장군, 미대통령, 판문점에 등에 결의문을 보내자

- 의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묻겠음. 재석의원 14명 전원 가결

- 각 분과위원장의 선거가 상정되었는데 전원 출석한 가운데 이 다음 의회
에서 선거하도록 하자. 전원 찬성

- 의사일정과는 별도 문제인데 청년단에서 단비 징수에 관한 서류가 제출
되어 왔으니 토의해주기 바람

◇한청단장 김 수 남

- 단비 징수의 필요성을 설명 (내용 생략)

◇박 찬 규 의원

-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청년의 힘이 큰 것은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 목표에 청년단이 모일 사무실이 한 칸도 없다 함은 유감스러운 일임에
최소 한도로 삭감해서라도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줄 것을 동의 (재청)

◇이 재 흥 의원

- 집만 준비하여 준다면 별문제가 아니나 청년단체가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예산도 있어야 될 것이니 이 문제를 신중 검토하기 위하여 차기 의회에 정식 상정하고 오늘은 보류하자 (동의자 박찬규 의원 보류 수락)

◇김 삼 성 의원

-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문화가 발달하려면 교통의 편리가 제일 크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에서 부산을 가려면 여비에 대한 복잡성과 불편한 점은 물론이거니와 각 도서지방에서 모인 사람들이 목포에서 숙박하게 되면 목포시의 경제가 그만큼 윤택해질 것이다.

목포 부산간 직행열차를 본선에 연결시키도록 국회 및 교통부에 건의할 것과 학생열차 운영을 부활하도록 도의회 및 순천철도국으로 건의문을 보낼 것을 긴급 동의

- 재청에 이어 3청이 있었음.

◇의장 유 정 두

- 가부를 묻겠음. 재석의원 14명 전원 가결

◇김 영 완 의원

- 거반 일요일에 영암출신 도의원과 면의원, 경찰서원 약 50명이 국도 연결망인 용당도선을 임의로 이용하여 일반 여객에게 지장을 준 사실이 있어 이를 정보대에서 조사하여 보고하였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조사위원 3명을 선정하여 진상을 조사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이 있었다.

◇김 팔 용 의원

- 가부를 묻겠음. 재석의원 14명 전원 가결

◇의장 유 정 두

- 조사위원으로 김팔용, 진복춘, 이복주 의원을 지명 선정

- 회의록 서명위원에 김삼성, 김영완 의원을 지명

8. 폐회선언

의장 유 정 두

(오후 4시 10분)

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에 서명 날인함

단기4286(1953)년 5월 1일

의장 : 유 정 두

의원 : 김 삼 성

” : 김 영 완

작성자 서기 : 천 세 봉

제18회 목포시의회 속기록

◇의장 유 정 두

- 사무 감사를 비롯하여 예산 심의 등으로 우리 의회가 그간 쉬었습니다마는 특히, 오늘은 김팔용 의원 외 6명 의원의 특별 소집 요구가 있어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북진통일 전쟁에 대비한 결의문을 우리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각 요로에 발송키로 하는 등등 중요안건임에 토의함과 동시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럼 먼저 판초자공장 설치 교섭차 중앙에 갔다오신 박찬규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 찬 규 의원

- 과반 의회에서 판초자공장의 유치 운동의 사명을 가지고 부의장과 시장, 저하고 3인이 4월 11일 목포를 출발하여 부산에 갔습니다.

부산에 가서 보니 먼저 박홍석씨를 중심으로 주동이 되어 있는 옹크라에서는 담양군에다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상공부를 방문하여 화학과장을 방문하였더니 우리에게 대단한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사회부를 찾아갔는데 차관이 고향에 가고 없어서 장관을 뵈옵고 판초자공장의 유치가 이미 목포로 되었다는 말이 신문에 보도되어 알았다고 말한즉 나는 아직 기자에게 그런 말을 한 바가 없다고 하였으나 위치만은 목포지구가 된 것 같은데 어디라고는 이 자리에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비료공장까지도 우리 목포에 달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지 관계는 5천환이면 5천환을 주고 사야지, 그렇지 않으면 옹크라에서 노(No)한다고 합니다. 위치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상부 결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 정 두

- 결과 보고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김팔용 의원 외 5명으로 요구 소집된 북진통일 쉼기의 건에 관하여 보조를 같이 하도록 토론하여 주십시오.

◇김 영 완 의원

- 여태까지의 쫓기대회를 보면 시나 경찰서가 주동이 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쫓기대회를 하면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정신을 통일시켜 요로 당국에 보여주는 것이므로 금반에는 시의회가 주동이 되어 북진통일의 결의문을 국회에나 기타 요로에 보낼 것과 내일 역전 광장에는 과거 3.1정신을 살려서 각 처로 보낼 것을 동의합니다.

◇이 복 주 의원

- 전반에도 국민회 주최로 하여서 반회의 등을 하였던 말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행사가 있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참가하도록 국민회 지부장께 말씀을 하여서 국민회가 주동이 되는 것보다도 우리 의회가 주동체가 되어서 일을 하도록 김영완 의원 동의에 참가하여 말씀드리고 각 요로에 건의문을 보내는 것을 찬성합니다.

국민회에 요청하여 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주동체가 되어 나가기를 참가 재청합니다.

◇의장 유 정 두

-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의문을 작성하여 국회, 정부, 대통령, 유엔총회, 판문점 등에 건의하기로 하고 결의문 작성은 사무 당국에 일임하여 국민회에 요청하여 시의원이 주동이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대통령, 유엔총회, 크라크장군, 미대통령, 판문점 등에 결의문을 보내자는 것입니다.

◇김 경 현 의원

- 우리가 과거 40년간의 왜정에서 해방을 보게 된 것도 우리의 청년의 힘이 과거의 3.1정신에 있는 것이므로 가장 중대하다고 생각되니 내일의 시민 쫓기대회에는 청년단을 참가하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동의에 참가합니다.

◇이 재 흥 의원

- 먼저 사무 당국에 물어보겠습니다.
전반에 의회에서 가결된 통일없는 휴전반대의 결의문이 시의회의 명의로써

보내졌는가 대답해 주십시오.

◇서기 박 찬 대

- 전부 영문화하여서 이미 발송하였다는 별지의 결의문에 의한 요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장 유 정 두

- 계속해서 보내 주십시오, 그럼 동의안의 가부를 묻겠습니다. 전원 통과되었습니다.

- 각 분과위원장의 선거가 상정되었는데 이것은 오늘 상정만 하여 놓고 이다음의회에서 선거하기로 하는 것이 좋겠지요?(그렇게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것은 별도 문제인데 청년단으로부터 기금을 각출하겠다는 서류가 들어왔는데 우리 시민의 실정에 맞도록 심의와 토론을 하여 주십시오.

◇김 삼 성 의원

- 당사자로부터 필요성의 설명을 듣기로 합시다(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한청단장 김 수 남

- 실은 과거 시청의 소요건물에 사무실이라고 있었는데 철거 명령이 있자 갈 곳이 없기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일선에서 돌아온 군경이 현금이 없어서 여관에서 숙박을 못하고 있는 현실임에 예산만 수립된다면 방을 5칸 정도 준비하여 합숙을 시킴도 좋고 또는 사무실만은 있어야 함에 사무실을 구득(求得)코자 하며, 기타 예산이 수립되면 사업 등을 운영하여 청년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대략 이런 정동의 계획이며, 상세한 것은 서면에 있으므로 참고로 하여 주십시오.

◇박 찬 규 의원

- 어느 나라를 물론하고 청년의 힘이 큰 것은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 목표에 청년단이 모일 사무실 한칸이 없다 함은 섭섭한 일임에 매호당 30원 정도를 삭감하여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줄 것을 토의합니다. (재청하는 이 있음)

◇이 재 홍 의원

- 이 문제는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의원의 말씀대로 집만 준비하여 준다면 무엇입니까? 청년 단체가 움직일 수 있는 정도로 예산까지 있어야 할 것임에 신중 검토하기 위하여 이 다음 의회에 정식으로 상정하고 오늘은 철회하기로 합시다.

◇의장 유 정 두

- 검토를 위하여서 이 다음에 하기로 동의안으로부터 철회 하였습니다.

◇김 삼 성 의원

- 어느 나라를 물론하고 발달하려면 교통의 편리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에서 부산을 가려면, 대전에서 숙박을 하고 기차편으로 부산에, 또는 선박으로 가게 되면 목포에서 여수로 가서 1박을 하게 되어, 부산가는 여객에 대한 복잡성과 불편한 점은 물론이거니와 각 도서지대에서 모인 여객들이 목포에서 숙박을 하게 되면 목포시내의 경제가 어느 정도 나아질까 생각됨에 부산에서 목포는 물론이거니와 광주서 목포간의 학생 열차를 부활하도록 도의회에나 순천철도국으로 본 시의회에서 결의문을 보내기로 긴급동의합니다. (재청, 3청)

◇의장 유 정 두

- 가부를 묻겠습니다.

전원 가결되고 결의문은 사무 당국에 일임하기로 합시다.

◇김 영 완 의원

- 영암 출신 도의원, 면의원, 경찰서원 등 약 50명이 용당도선을 1시간 가량을 빌린다 하여 가제도에 갔는데 배가 걸려서 몇 시간을 허비함으로 인해 국도 연장선인 도선이 여객에 대하여 지장을 주어 정보대에서 진상을 조사하여 보고 하였다는 말을 지난 일요일에 들었는데 김팔용 의원의 말씀을 들어 보기로 하고 조사위원 3명을 선정하여 진상 조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 팔 용 의원

- 그런 말을 듣고 선장에게 전말서를 받았습시다마는 영암출신 등 50명이
라 하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선장에게 주의를 환기하였으며
정보대원이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날 그 장소에서 정보대원이 선장에게
당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장 유 정 두

- 조사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팔용, 이복주, 진복춘 의원 3명의 가부를 묻겠습니다.
10표로 가결되었습니다.

- 폐회선언

(오후 4시 10분)